

#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의 관계 및 영향력 분석

고정완  
광주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and Influ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Factors and Teacher Efficacy

Jeong-Wan Go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G지역의 3,4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228명의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 중 외향성과 교사효능감이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신경증은 교사효능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 교사효능감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25%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 중 외향성이 교사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 중 외향성이 강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 교사효능감 증진에 외향적인 성격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외향적인 특성을 함양하기 위한 예비유아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factors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eacher efficacy. To carry out the research, this experiment subjected 228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in G city. The collected data were descriptive method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the SPSS 2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the personality factors and teacher efficacy. Second, the personality factors was an important factor for predicting the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lso, the explanation power of personality factors for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as 25%, extroversion is one of the most personality factors of infant pre-serve early childhood teacher. Therefore, according to this research, a preserves early childhood teacher training program for improvement of extraversion in personality factors is strongly desired.

**Key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onality Factors, Five Major Personality Factors, Teacher Effic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 Jeong-Wan Go(Gwangju Health Univ.)  
email: koreakjw11@naver.com

Received April 25, 2019

Accepted July 5, 2019

Revised May 30, 2019

Published July 31, 2019

## 1. 서론

유아교사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적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유아의 성장발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1]. 유아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특히 교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2]. 즉, 유아교사의 자질이나 교수능력, 성향 등은 모두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곧 유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사의 신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 중 유아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사 변인은 교사효능감이라 할 수 있다[3].

교사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에서 Bandura[4]가 강조한 개념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교사효능감이 높으면 학습수준이 낮은 유아들에게 발달수준에 적합한 교육환경과 맞춤형 학습활동을 제공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유아의 성장발달 과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6].

유아교사와 관련된 교사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자신의 교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하며, 개인효능감이 높은 유아교사는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업성취를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즉, 교사효능감은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유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교사효능감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들은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 동안에 교사효능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질 높은 교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으며[8], 이는 교사효능감이 유아교사 전 단계인 예비유아교사 시기부터 바람직하게 형성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유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사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양성기관에서의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교사효능감은 개인적 요인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개인적 요인들이 예비유아교사가 지각하는 교사효능감에 차이를 가져오는 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서 교사효능감과 관련된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유형과 관련성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의 성격특성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9,10]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격유형 중 외향성과 개방성 요인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도 높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개인의 성격을 설명하는 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유형론적 관점과 특성론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론적 관점은 한 축에 두 가지 반대 극을 제시하고, 한 쪽 극으로 분류된 사람은 반대 극으로 분류된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전제를 가진다. 그래서 인간 성격의 다양성을 반영해주지 못 하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최근의 심리학에서는 특성론적 접근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11].

최근 유형론적 관점인 MBTI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의 관계를 밝히면서 특성론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12],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살펴 본, 5요인 성격모델(Big-Five)은 특성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성격을 다양한 측면에서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요인 성격모델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이 다섯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요인은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13]라고 하였다. 따라서 성격 5요인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충분하고 사료된다.

유아교사의 성격특성은 유아의 학습을 수행하는데 있어 내리는 의사결정과 교수방법 및 행동의 기초가 된다[14]. 또한 업무 처리 방식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주며, 교육에 대한 신념과 현장에서의 학습, 역할수행에도 반영된다[12, 15]. 교사 개인의 성격특성이 교수방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교사의 성격특성은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은 5요인 성격특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는 미비하고, 그마저도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부분 유,초,중등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나 책임감이나 성격자점 등과 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결과[16,17,18]에 기초할 때 교사 개인의 성격은 교사 입문 이전 단계인 예비유아교사일 때부터 교사효능감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가는 측면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은 향후 바람직한 교직을 수행하게 하는 핵심요인으로써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예측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에 대한 변인을 알아보는 것은 예비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해보고,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성격유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현직교사가 되었을 때, 역할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지역의 3,4년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250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총 25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고 그 중에 23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문항이 누락되었거나 잘못 표기된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228부(91.2%)를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교사 성격유형 검사

본 연구에서는 성격유형 검사를 위해 Goldberg가 개발한 5요인 성격특성 척도인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을 유태용, 이기범과 Ashton[1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성격의 각 요인인 개방성 10문항, 성실성 10문항, 신경증 10문항, 외향성 10문항, 원만성 10문항으로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단계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당 총점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개방성 .87, 성실성 .80, 신경증 .81, 외향성 .82, 원만성 .84, 전체 .8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2.2.2 교사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교사효능감 검사를 위해 Enochs와 Riggs에 의해 개발된 과학 교수효능감 검사 도구 STEBI(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이분려가 번안하여 유아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고 이를 안상미 [20]가 예비유아교사에 맞게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반적 교사효능감 12문항, 개인적 교사효능감 13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5단계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효능감 검사는 최저 25점에서 최고 125점이다. 본 연

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일반적 교사효능감 .97, 개인적 교사효능감 .85, 전체 .8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2.3 검사 및 자료수집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검사시간, 예비유아교사의 질문에 대한 이해력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성격유형 검사, 교사효능감 검사에 대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의 대상으로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G시의 3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2,3학년 학생 각 5명씩 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연구도구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문항을 그대로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2019년 3월 18부터 3월 2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구대상자들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연구 본래의 취지를 설명하여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검사지 배포는 본 연구자가 직접 대학교에 방문하는 식으로 총 250부를 배포하고, 총 228부(91.2%)를 분석하였다.

### 2.4. 자료 분석

첫째,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결과 및 해석

### 3.1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 분석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personality factors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s

	M	SD	Skewness	Kurtosis
personality factors	87.42	7.64	.34	.16
teacher efficacy	116.93	12.11	.16	.64

(N=228)

성격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2, 표준편차는 7.64, 왜도는 .34, 첨도는 .16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효능감의 평균 점수는 116.93, 표준편차는 12.11, 왜도는 .16, 첨도는 .64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 값이 3을 초과하고, 첨도의 절대 값이 8을 초과하면 정규성의 가정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21]. 따라서 이 연구 자료는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3.2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ersonality factors and teacher efficacy of pre-service teachers (N=228)

personality factors	teacher efficacy	Igeneral teacher efficacy	Personal teacher efficacy	Total
openness to experience	.10***	.36***	.32***	
conscientiousness	.25***	.13*	.24***	
neuroticism	-.15**	-.27***	-.28***	
extroversion	.18*	.57***	.51***	
agreeableness	.34***	.08*	.25***	
Total	.25***	.31***	.36***	

\*\*\*p<.001, \*\*p<.01, \*p<.05

성격유형 전체와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36, p<.001$ ).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 중 개방성( $r=.32, p<.001$ ), 성실성( $r=.24, p<.001$ ), 외향성( $r=.51, p<.001$ ), 원만성( $r=.25, p<.001$ )은 교사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경증( $r=-.28, p<.001$ )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성격유형 중 외향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은 교사효능감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 중에서도 외향성이 교사효능감과 관련이 가장 높으며, 성격유형 중 외향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으며, 신경증이 낮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3.3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성격유형을 독립변인으로 교사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

선성의 진단 결과, 공차는 .82-.86, VIF가 1.00-1.14로 나타나 10보다 작아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였고, Durbin-Watson의 값이 1.28로 나타나 2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어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의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effect of personality factors on teacher efficacy (N=228)

personality factors	B	SE	$\beta$	t	$R^2$	adj $R^2$	F
(constant)	58.77	6.40		9.17***			
openness to experience	.47	.23	.23	2.03*			
conscientiousness	.50	.14	.33	.51	.25	.26	17.17***
neuroticism	-.70	.10	-.49	-6.54***			
extroversion	.74	.08	.51	8.96***			
agreeableness	.68	.19	.36	3.45**			
Total							

\*\*\*p<.001, \*\*p<.01, \*p<.05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본 결과, 성격유형은 교사효능감을 25%로 설명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7.17, P<.001$ ).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 중 개방성( $\beta=.23$ ), 성실성( $\beta=.33$ ), 외향성( $\beta=.51$ ), 원만성( $\beta=.36$ )은 정적 예측 관계를 보였으며, 신경증( $\beta=-.49$ )은 부적 예측 관계를 보였다. 또한 성격유형 중 외향성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은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 중에서도 외향성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다른 성격유형보다 더 높은 예측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격유형이 교수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22]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성격유형 중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원만성은 정적상관을, 신경증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고, 기분을 잘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거나 쉽게 불안해질수록 교사효능감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면 교사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18]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외향적이고 판단적인 교사가 효능감이 더 높다고 밝힌 연구결과[23]와 대상은 다르지만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리경향과 교사효능감의 관계연구에서 외향성이 내향형보다 교사효능감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12]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편, 신경증과 교사효능감은 부적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신경증 특성을 지는 교사는 다른 특성의 교사들보다 부정적 감정을 자주 호소하고, 교사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는 연구결과[10]와 일치한다.

즉, 활동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와 협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사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의 성격유형을 개발할 수 있는 교사 교육 및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에 영향력을 가진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유형 중 외향성이 교사효능감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밀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느긋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을수록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은 다르지만 초등교사의 5요인 성격특성이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9]와 유치원 교사의 5요인 성격특성 중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친화성이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24]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성격유형 중 신경증은 교사효능감을 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증 척도가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생활에서 부적응을 경험하며, 불안, 두려움, 우울,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들을 빈번히 경험하기 때문에[25],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교사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성격 유형 중 외향성이 가장 높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과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첫째, 성격유형 중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위해 예비유아교사의 성격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주목해야 하며 더불어 교사효능감에 나타나는 효과를 증명하여 이를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성격유형이 교사효능감을 예측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성격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신에 대한 자각과 교사효능감에 영향력에 대해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지역에서의 예비유아교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증진을 위한 변인으로 성격특성만을 고려하였지만, 이외에도 어떠한 변인들이 교사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교사효능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로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De Schipper, J. C., Tavecchio, L. W. C., & Van IJzendoorn, M. H. "Children's attachment relationship with day care caregivers: Association with positive caregiving and the child's temperament", *Social Development*, Vol.17, No.3, pp.454-470, 2008.
- [2] Katz, L. G. "The professional early childhood teacher", *Young Children*, Vol.39, No.5, pp.3-10, 1984.
- [3] Ashton, P. T. "Teacher efficacy: A motivational paradigm for effective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 35, pp.28-32, 1984.
- [4] Bandura, A.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2, No.2, pp.122-147, 1982.
- [5] M. J. Kim, Relation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Self-Concept and Teaching-Efficacy,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Daegu, Korea, pp.69-70, 2007.
- [6] Vrugt, A. "Perceived self-efficacy, social comparison, affective reaction and academic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64, No.3, pp.465-472, 1994. DOI: <https://doi.org/10.1111/j.2044-8279.1994.tb01117.x>
- [7] S. N. Ko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 early childhood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role performa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chonbuk-Do, Korea, pp.1-4, 2000.
- [8] K. H. Jeon, Y. J. Hur, N. J. Han, "The investigation on the change of teache efficacy of practice student througt teaching practic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10, No.4, pp.295-329, 2006.
- [9] N. U. Lee, The effect of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on teacher-efficacy: Mediating effect of coping strategies, Master's thesis, Major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pp.35-41, 2013.
- [10] H. G. Yoon, The effect of kindergarten teacher'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teaching effic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jou University, Gyeonggi, Korea, pp.36-40, 2019.
- [11] Quenk, N. "Personality types of personality traits: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Bellein of Psychological Type, Vol.16, No.2, pp.121-127, 1993.
- [12] M. H. Park, H. S. Sim, "A Study on the differences between Teachers'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middle school teachers' psychological preferenc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Vol.15, pp.75-100, 2009.
- [13] Buss, A. H. "Personality as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Vol.44, No.11, pp.1373-1388, 1989.
- [14] Yang, S. C., & Lin, W. C.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e, critical thinking and. Thinking styles in taiw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Vol.31, No.1, pp.33-45, 2004.
- [15] H. K. Dan, Y. U. Yu, "The relationships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personality types and teachers' play teaching efficacy", The Korea Society for the Study of Teacher Education, Vol.23, No.2, pp.267-283.
- [16] T. H. Moom, "Relations amo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education teacher's positive mus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d happiness", Journal of the Childhood Education, Vol.23, No.1, pp.43-58, 2014.
- [17] S. H. Park, "Relationships among aptitude for teaching profession, Self-Esteem and teaching effic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19, No.2, pp.211-242, 2015.
- [18] S. M. Cheon,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on the relation between childhood teachers' character strength and happines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5, No.8, pp.2623-2637, 2014.
- [19] T. Y. Yoo, K. B. Lee, Ashton, M. C.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HEXACO personality inventory",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8, No.3, pp.61-75, 2004.
- [20] S. M. Ahn, The interactions between kindergarten teachers and children by teachers' efficacy belief,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28-32, 2002.
- [21] H. J.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lligence on quality of life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pp.72-83, 2007.
- [22] M. Y. Jeong, H. J. Ahn, "A study concerning the relationships among an early childhood educator's type of MBTI personal tendencies, creativity, and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50, No.3, pp.25-34, 2012.
- [23] A. K. Kim,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type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The Korea Society for Children's Media, Vol.14, No.3, pp.231-253, 2015.
- [24] M. Y. Jeo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early childhood educator's creativity, efficacy, and personality typ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Korea, pp. 65-71, 2011.
- [25] H. J. Lee, Five factors of personality trait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levels and coping strateg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Incheo, Korea, pp.45-50, 2011.

고 정 완(Jeong-Wan G0)

[정회원]



- 2016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9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광주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영유아교수방법, 유아교육세미나, 유아과학교육